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조성 속도

생산 시설·연구단지 구축 박차
해조류 헬스케어 실증 사업 추진
감태 등 해조류 수요도 크게 늘어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군이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완도군은 해양자원 가운데 해조류를 소재로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완도군은 3년간 총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해조류 활성소재 생산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 등 고부가 해양바이오 제품 개발을 위한 원료 소재 공급체계 구축 사업이다. 또 '해조류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유효성 소재 실증지원' 사업(150억원), '바이오메디컬 R&D 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90억원)' 등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 110억원 규모의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공동협력 연구의 주 내용은 '뿔 추출물의 치매 예방 상용화 연구', '갈조류 유래 항염증·항생·면역 개선 천연물 기반 동물사료 개발' 등이다.



완도군 해조류 활성소재 생산시설 조감도.

〈완도군 제공〉

최근에는 해조류 추출물과 전복 내장 등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해양바이오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해조류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지난해 8월 완도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타메디는 해양 천연물 신소재 씨놀의 원료인 감태 25만t을 2025년까지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완도군은 감태 시범 양식에 나섰다.

완도군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하나로 해조류 양식기술을 북측에 이전·보급하고 북측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해양바이오 제품화에 나서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 산업은 어민 소득 증대와 해양바이오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다"며 "완도 경제 발전의 근간인 수산업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호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여객선사 씨월드고속훼리 '퀸제누비아' 호 세계 3대 해운 전문지 '올해의 선박' 선정

국내 제주기점 항로 1위 연안여객선사 씨월드고속훼리(주)의 '퀸제누비아'호가 세계 3대 조선해운 전문지인 영국 'The Royal Institution of Naval Architect'에서 선정한 올해의 선박 카페리 분야에 선정됐다. 1990년부터 발행돼 약 3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전문지는 매년 건조되는 수천 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강도, 신공법·신기술 적용 여부 외 디자인 등 여러 항목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분야별 우수선박을 선정한다. '퀸제누비아'호는 국내에서 건조된 로팩스(카페리)선박 중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정됐다. 목포-제주를 운항하는 퀸제누비아호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현대화펀드를 통해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한 씨월드고속훼리 최초의 신조선이다. 국내 최대·최고·최화 명품 유럽형 로팩스 선박이다. 길이 170m, 너비 26m, 높이 20m, 톤수 2만 7천391t 규모로 1천284명의 여객과 480여 대의 차량(승용차 기준)을 싣고 최고 24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많은 고객으로부터 안정성과 규모,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호평받으며 순항 중이다. 올해 2월에는 이를 인정받아 제주도민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첫 출하분을 수송하기 위한 운송수



씨월드고속훼리(주)의 퀸제누비아호.

단으로도 채택되기도 했다. 이혁영 씨월드고속훼리 회장은 "메이저 조선소에서 자료를 제공해 평가를 받는 기존 절차와 달리 영국 본사에서 먼저 자료를 요청해 평가를 받아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퀸제누비아호는 씨월드만의 철학과 신념을 담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은 뛰어난 작품이다"며 "국내 연안 최고의 선박을 넘어 세계적 명품 선박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제주벚길, 바다 위 KTX'라는 슬로건을 필두로 2022년 4월에는 제주기점 최단 거리 항로인 진도항에서도 현재 신조 중인 초쾌속선 산타모니카호가 신규 취항 예정이다. /목포=박영갑 기자 kyl@kwangju.co.kr

명품 해남고구마 맛 보세요



명현관(오른쪽 두번째) 해남군수가 해남 산이면 농민들과 함께 수확한 고구마를 들어보이고있다.

조기재배 '진율미' 수확 시작
식이섬유·무기질 풍부 '인기'

정정 해남에서 재배된 고구마 수확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남군은 조기재배용으로 일반 고구마보다 2달 가량 빠른 밭고구마인 '진율미' 품종의 핫고구마 수확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진율미는 2016년 국내 육종된 밭고구마 품종으로 맛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 호응 속에 재배면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해남에서의 고구마 수확은 11월까지 계속된다.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황토땅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해남고구마는 당도가 높고 식이섬유와 무기질 성분이 많아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지리적표시 농산물 42호로 등록돼 있으며, 면역력을 높여주는 영양성분으로 코로나19 이후 소비량이 대폭 늘고 있는 농산물로 꼽히고 있다. 해남은 연간 3만4000여t의 고구마를 생산하는 최대 고구마 주산단지로 600여 농가가 연간 700여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신안군장학재단 상반기 장학생 301명 선발

신안군장학재단이 이사회를 개최해 2021년도 상반기 장학생을 최종 확정했다. 신안군은 지역 내 초·중·고·대학생 등 301명(우수대학생 127명, 내고장진학 33명, 일반 66명, 만학도 32명, 다문화가정 25명, 어가 및 저소득 자녀 18명)에게 장학금 3억7300만원을 지급한다.

매년 상·하반기 2회 장학생을 선발·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군 소재 학교에서 장학금 지원접수를 받아 이사회에서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장학재단은 학생들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해 상반기 장학생 선발계획 인원

보다 109명의 많은 인원을 선정했다. 코로나19 극복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장학증서 수여식은 생략하고 초·중·고등학생은 해당 학교로 대학생은 주소지로 전달할 계획이다. 장학재단 이사장인 박우량 신안군수는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재단은 신년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목포 교육단체 목포문학박람회 성공 힘 모은다

시, 전남교육청·목포대와 협약

목포 지역 교육단체가 10월 열릴 목포문학박람회 성공개최에 힘을 모은다. 목포시는 최근 전남도교육청, 목포대학교와 '2021 목포문학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종식 목포시장과 장석웅 전남교육감, 박민서 목포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3개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목포문학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상생 협력, 유관기관 직원·학생 등 프로그램 참여 및 관람 협조, 학생 문학 교육 교류 및 시설물 활용 적극 협력, 기타 협력기관 간 정보제공 및 제반 사항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 문학을 주제로 한 목포문학박람회는 오는 10월7일부터 10일까지 목포시 전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목포시는 지역 초·중·고 학생 및 목포대학교 대학생들에게 전시·행사·체험 등을 통한 문학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문학박람회를 학교 밖 현장 교육 활동의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도내 초·중·고 학생 및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근대문학의 원류인 목포에서 열리는 문학박람회에 적극 참여해 즐겁고 유익한 가을을 보내길 바란다"면서 "예비문화도시 목포가 문학박람회를 통해 아시아 및 세계 유수의 문학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정배 기자 pjb@kwangju.co.kr

무안읍 도시재생 공모사업 참여 단체 모집

무안군이 2021년 하반기 무안읍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무안군에 주소지나 거주·생활권을 둔 주민 5인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이며 단체들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문화·복지·경제 등 여러 분야의 사업 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총 6개 단계 안팎을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사업비는 건 당 최대 1000만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오는 8월 9일부터 13일까지 군 지역개발과에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무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사업화 논의 등 상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군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그림과 활동을 통한 공동체 형성과 주민 참여 실행계획서 작성 등 여러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김산 무안군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스스로 기획한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기회를 제공해 도시재생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